

대구지역 불자들의 '명예'로 작용했던 대구불교회관 건립이 최근 기존 철골구조물 및 부지를 매각하고, 시내 중심가에 5층 빌딩을 매입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로써 대구불교회관 건립문제가 10여년 만에 일단락 돼 대구불교계가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대구사원주지연합회(회장 원명)는 11월 16일 총회를 열고, 대구 남구 대명2동 1800-2번지에 위치한 옛 태왕주택 본사 매입을 결정했다. 12월 말 개원할 예정인 새 불교회관은 건평 약 120평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이다.



대구사원주지연합회는 최근 대명2동에 위치한 옛 태왕주택 본사건물을 매입했다. 12월말개원예정인 새 대구불교회관전경.

대구불교회관 10년만에 문연다

대명동 새 건물 매입, 공사중단부지 매각

대구 사원주지연합회 새 불교회관 운영계획에 따르면 지상 1-2층은 입대, 3층은 불교신행단체 사무실, 4-5층은 사원주지연합회 사무실 및 대·소 회의실 등이 입주하는 것으로 돼 있다. 대법당은 내년 봄 건물을 한계 층을 더 올려 여법하게 건립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93년부터 공사가 중단돼 흉물로 전락한 기존의 신원동 소재 불교회관 건물의 철골 구조물과 대지는 매각하기로 했다. 이는 철골에 쓴 녹을 깎아내는 샌딩작업과 바닥의 철관교체작업 그리고 주차장 신설 등에 드는 추가비용을 포함, 최소한 60억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건평 120평 5층 규모...이달말 개원예정
신행단체 사무실등 입주, 다양하게 이용

대구지역 신행단체 한 관계자는 "기존의 불교회관 건물이 완공되지 못해 아쉬움이 크지만, 녹슨 철골구조물이 무너져 민가를 덮칠까봐 조마조마 했던 걱정이 없어진 것만 해도 다행"이라며 "새 불교회관이 마련되면 지역교포의 중심도량이 될 수 있도록 신행단체들이 다양하게 이용하는 방향으로 운영됐으면 한다"는 불교회관 건립과 관련한 원을 피력했다.

한편 대구불교회관 건립은 지난 83년 불교회관건립 추진위원회(회장 백욱기)가 구성된 이후 88년 대구사

원주지연합회에서 (사)마하야나불교문화원을 설립, 기금마련 및 토지매입에 적극 나서면서 부터다.

93년 6월 대구 신천 4동에 대지 3백 77평, 연건평 2천3백61평, 지상 8층 지하 2층규모로 불교회관 기공식을 가진 바 있다. 하지만 94년 1월 마하야나불교문화원이 재정난에 빠지면서, 철골철근 구조물만 완성된 약 30%의 공적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장기간의 공사중지로 인해 철골 구조물이 벌겋게 녹이 슬면서 최근에는 주변의 민가 등지에 녹이 날아들고 있어 수차례 민원까지 야기, 지역 언론의 집중적인 질타를 받아왔다.

대구=박원규 기자

항일 '법정사 성역화' 무산위기

제주도문화재위, 사지 기념물 지정 보류

유족·시민들 반발...서귀포시 "재신청 계획"

제주도 서귀포시가 추진해온 법정사 항일항쟁 성역화사업이 해당 광역지자체 문화재위원회의 사지 기념물지정 보류로 내년부터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제주도 문화재위원회는 서귀포시가 지난 1월 신청한 옛 법정사 터 기념물 지정에 대해 "일제시대 이후 기념물 지정 대상들을 조사한 뒤 동시에 내린 뒤 10개월째 가부결정 심의를 보류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가 국가보훈처 지원예산 8억과 자체예산 27억여원을 들여 2003년부터 위패봉안소,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려는 계획이 차질

을 빚게 됐다.

한 유족은 "최근 모습에 있는 일제의 항공기 격납고를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상황에서 이틀간 일본 주재소들을 파견하고 66명이나 투옥됐던 항일운동사에 길이 빛날 사건의 중심지인 법정사 터를 기념물로 지정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신청한 해당유적의 가치를 심의하지 않은 문화재위가 다른 유적까지 조사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서귀포시청 한 관계자도 "유족들

과 시민들의 반발이 크다"며 "12월 경 제주도 문화재위원회에 법정사 기념물 지정을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정사 성역화사업은 서귀포시가 1910년대 스님들을 주축으로 한 불교계 민족운동을 대표하는 항일운동 발원지인 법정사 일대를 역사교육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에 따라 추진 주재소들을 파견하고 66명이나 투옥됐던 항일운동사에 길이 빛날 사건의 중심지인 법정사 터를 기념물로 지정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신청한 해당유적의 가치를 심의하지 않은 문화재위가 다른 유적까지 조사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서귀포시청 한 관계자도 "유족들

충남 종교시설 10곳중

사찰 2곳, 교회 7곳

충남도내 종교시설 10곳당 교회 수가 7곳에 달하며, 사찰 수는 단지 2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도청이 11월 24일 밝힌 '충남도내 종교시설 현황'에 따르면, 도내 종교 시설은 총 3,831곳이며, 개신교는 2,652곳(69%), 불교는 859곳(22%), 천주교는 164곳(4%)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또 도내 전체 인구 대비 종교시설도 교회가 한 곳당 723명(0.0013) 이상이고, 사찰은 2,359명, 성당은 1만 1,600명으로 확인됐다. 시군별 현황을 보면 교회가 가장 많은 곳은 천안(425곳)이며, 사찰은 공주 147곳, 성당은 당진 38곳 등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종교시설 대비 교회가 가장 높은 곳은 태안으로, 총 139곳 가운데 교회가 무려 84%에 달하는 118곳으로 집계된 반면, 사찰의 경우는 공주가 높게 나타났다. 김철우기자

부산·대구 자원봉사모임 활발

조직재정비·개별봉사자 흡수·통합

부산과 대구에 자원봉사자모임이 활성화되고 있다.

부산에서는 부산불교신도회(회장 류진수) 산하 자원봉사단(단장 강경준, 등해중학교 교장)이 11월 25일 조직을 정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대구에서는 9교구 동화사 봉황자원봉사단이 창립 2년여 만에 11월 22일 전체모임을 갖고 신성자(49, 불명 마니주) 회장을 선출하는 등 조직을 재정비, 본격 활동에 나섰다.

부산불교신도회 자원봉사단은 자

체 자원봉사자 50여명과 현재 부산 시립의료원, 동의의료원, 성우원, 보현행원 등 자원봉사자 110명 등 총 160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11월 28일 부산시립의료원 행려 병동에 옷 100벌을 전달했다. 강경준 단장, 장세종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10개팀으로 나눠 활동하는 자원봉사단은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불자 자원봉사자를 흡수, 통합하겠다는 각오다. 이처럼 부산불교신도회 자원봉사단의 조직재정비와 재정적 지원은 불자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전환과 함

께 자원 봉사를 통한 포교의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11월 22일 대구 보현사에서 전체회의를 가진 9교구 불행자원봉사단에는 100여명의 동화사 말사 및 자비의 집, 자비의 전화, 맑고향기롭게 대구본부 등 부설 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단위사찰 봉사단의 조직을 활성화해 제2의 도약의 기회로 삼는다는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또 12월 11일 대구 전신컨벤션터에서 '제9교구 자원봉사자대회 및 사회복지법인 동화사 설립을 위한 자선바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천미희·박원규 기자



6·25전쟁에 참전해 유명을 달리한 2300여 외국인 영가의 국악왕생을 기원하는 국악영가천도대제 11월28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서 열렸다.

"전북지역 열반사상의 중심지"

'백제불교=미륵사상' 관점 수정돼야

'경복사지' 학술회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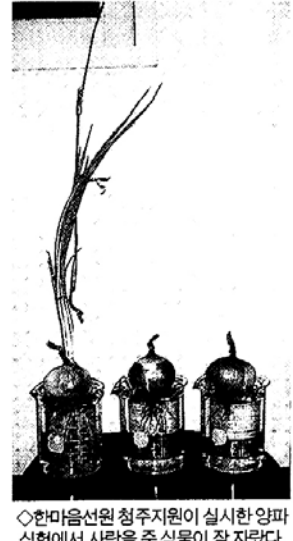
7세기 백제불교는 미륵사상뿐 아니라 열반사상이 크게 유행했으며 전북지역은 열반종과 열반사상의 '중심지'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대 전라문화연구소소장 임명진과 '보덕화상과 경복사지에 대한 학술적 검토'를 주제로 11월 22일 개최한 학술회의에서 김방룡교수(전남대)는 "보덕이 고구려를 떠나 완주에 경복사를 세우고 열반종을 개창한 것은 이미 백제지역에 열반사상

이 유행하고 있었거나 그것을 수용할 만한 토대가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라며 "전북지역에 형성된 백제불교를 미륵사상으로만 보던 기존 관점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그 동안의 발굴조사와 각종 기록을 볼 때 보덕의 제자들이 세운 8개의 열반종 사찰은 모두 전북 지역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보덕이 열반종을 조선시대까지 그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한마음선원 청주지원이 실시한 양파 실험에서 사랑을 준 식물이 잘 자랐다.

"사랑받은 식물 잘 자라요"

한마음선원 청주지원, 양파실험

한마음선원 청주지원(지원장 청봉스님) 어린이법회 이사회(20, 충북대 경영학부 1년) 지도교사는 지난 9월 한 달간의 양파실험을 통해 사랑과 칭찬, 희망, 긍정, 용기 등을 주는 말을 듣고 자란 양파가 무관심으로 대 한 양파에 비해 부러 63cm 정도 더 자랐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말을 못하는 식물과도 한마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신기했다"면서 "이 실험을 통해 '일체유심조'와 만물에 불성이 깃들어 있다는 교리를 확인해 공부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043)259-5599

김재경 기자

소년소녀가장 103명에

총효사·법화선원 장학금

11월 27일 부산의 한 전통 찻집에서 경북 영천 총효사(주지 해광)는 부산의 연제구청, 기장군청, 사하구청을 비롯 10개 구청에 거주하는 1백만 소년소녀가장에게 전달하며 1천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이 장학금은 11월 28일 구청별로 권장길, 윤해영, 이상근 등 100백명의 소년소녀가장에게 전달됐다.

또 지리산 법화선원 부산법당(주지 법광)도 11월 22일 개원 1주년을 맞아 기념법회를 열고 관내 소년소녀가장 3명에게 각 3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천미희 기자

스님 '바라춤 포교' 뒷바라지

인천 구양사 박정임·김숙자·박화자 보살

"절에 갔을 때 스님이 안계시면 섭섭하죠. 하지만 불교무용과 포교를 위해 힘쓰는 스님이 이제 더없이 자랑스럽습니다"

인천시 무형문화재 제10호 바라춤과 바라춤 보유자인 구양사 주지 능화스님은 일주일에 서너 번 씩은 강의와 공연으로 절을 비우게 된다.

이렇듯 스님이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것은 신도회장 박정임(길상화, 53), 부회장 김숙자(길상향, 55), 국제문화교류회장 박화자(묘각성, 70) 보살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행여 절에 오는 다른 신도들이 스님을 살뜰히 챙겨주고, 절의 살림을 꾸리는 것부터 절 안팎을 구석구석 청소하고 돌보는 일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는다. 사찰의 일뿐만 아니라 바라춤 후원을 만들어 공연이 있을 때면 옷이나 무용 도구 등을 챙기기도 하고 조금씩이나마 후원 회비를 모으기도 한다.

"순직 하나 밟지 하나에도 부처님에 대한 일심의 기도가 깃들어 있는

불교무용의 가르침처럼, 부처님 법을 받들어주고 널리 퍼졌다"는 이들을 위해 힘쓰는 스님이 이제 더없이 자랑스럽습니다"

올해 초파일부터 신도회장 소임을 맡고 있는 박정임 회장은 "구양사 5년차" "아는 것도 없고 경험도 부족한데 회장이란 자리를 맡아 부끄럽다"는 박 회장은 "회장으로서 신도회를 이끌어가는 것 또한 공부



구양사 박정임 신도회장(사진 중앙)과 김숙자 부회장(왼쪽), 박화자 국제문화교류회장(오른쪽)이 법당을 청소하고 있다.



"신도들 가족처럼 의지·화합에 주력"

의 과정으로 삼겠다"고 말한다. 박 회장은 올 한해 신도들이 가족처럼 지내도록 하는데 더욱 힘을 생각이다. "신도들이 가족처럼 의지하고 화합할 수 있으면 절에 오는 일이 즐거워지고, 신심이 깊어지잖아요"

부사에서 나온 자란 김숙자 부회장은 1981년 인천에 자리 잡았다. 낯설고 물설은 인천에서 신생활을 하고 싶었던 김 부회장은, 86년 자신의 집 근처에 법당을 연 능화스님을 만나게 됐다. 그러나 선뜻 문을

추천의 말

능화스님 구양사 주지



구양사는 앞으로 불교교양 대학과 대학원 대학을 설립하는 등 '불교문화의 거점사찰'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서원을 차곡차곡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뒤에 서 말없이 도와주는 박정임, 김숙자, 박화자 보살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찰 일과 신도들의 고충도 함께 고민하고 이끌어가는 세 분 보살님들은 구양사의 큰 버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분 보살님처럼 불자들이 서로 이끌며 주면서 부처님 정법을 실천해 갔으면 합니다.

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하다.

"항상 공부하고, 이웃을 가족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려는 것이 구양사 신도들의 한결같은 바람입니다."

인천=여수형기자